

키움 이정후...생애 첫 올스타 최다득표

팬과 선수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가 생애 첫 KBO 올스타 최다 득표 영광을 안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2023 신한은행 쏘 KBO 올스타전 베스트12를 발표했다.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는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진행됐다. 10개 구단 감독, 코치, 선수가 참여한 선수단 투표는 13~15일 경기가 열린 5개 구장에서 실시됐다.

지난 1.2차 팬 투표 중간집계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나눔 올스타 외야수 이정후는 마지막 주에도 선두를 유지했다.

239만 2236표 중 124만 2579표(51.9%)의 높은 득표율로 팬 투표 1위를 차지했고, 선수단 투표에서도 355표 중 276표(77.7%)로 1위에 올라 팬과 선수 모두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2018년 두산 베어스 양의지에 이어 역대 2번째다.

또한 이정후의 선수단 득표 276표(득표율 77.7%)는 2016년 NC 다이노스 나성범, 2022년 삼성 라이온즈 호세 피렐라의 236표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다 선수단 득표 및 득표율이다.

데뷔 후 첫 최다득표 1위를 차지한

선수단 투표 276표...역대 최다 선수단 득표

김민석, 고졸 신인으로 역대 4번째 베스트 12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이정후는 5시즌 연속이자 통산 6번째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 베스트12에 선정된 롯데 자이언츠 고졸 신인 김민석은 팬 투표에서 92만 5811표로 삼성 구자욱(97만 0157표)에 이어 외야수 부문 2위, 선수단 투표 합산 결과 최종 3위를 차지했다.

고졸 신인으로는 역대 4번째 베

스트12(중전 2009년 KIA 타이거즈 안치홍, 2017년 키움 이정후, 2019년 LG 트윈스 정우영) 영예를 누리게 됐다.

드림·나눔 올스타 베스트12는 롯데와 KIA가 총 7개 부문, KIA가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롯데는 2차 집계까지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1루수 부문

에서 KT 위즈 박병호가 선수단 투표로 뒤집어 최종적으로 7명의 베스트 12를 배출했다.

LG 고우석도 높은 선수단 투표 득표율로 KIA 정해영을 제치고 가장 치열했던 나눔 올스타의 마무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우석은 선수단 투표, 정해영은 팬 투표에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총점 0.38점 차이로 고우석이 이슬아슬하게 베스트12 마무리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 박세웅, 노진혁, 김민석, KIA 최지민, 키움 김해성, NC 김주원은 KBO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이번 올스타 베스트12는 10개 구단 체제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구단의 선수가 1명 이상 선정돼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구단 별로는 드림 올스타에서 롯데 7명, 삼성 2명, SSG 랜더스, KT, 두산은 각각 1명씩 선정됐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 4명, 키움, LG, NC, 한화 이글스에서 2명씩 선정됐다.

한편 2023 신한은행 쏘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 SSG 김원형, 나눔 올스타 키움 홍원기)의 추천 선수는 각 팀 13명씩, 총 26명을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장흥군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내달 1~7일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장흥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중등·고등·대학·여성·일반부로 나눠 경기를 진행한다. 체급별로 단체전과 개인전이 펼쳐지면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 대회 관계자 1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중 3일간은 오후 2시부터 MBC 플러스를 통해 전국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다. 장흥군은 올해 3월에 대한씨름

협회와 대통령기 씨름대회 유치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

장흥군은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 민속 씨름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장흥군에서 첫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씨름대회를 통해 장흥군을 알리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포츠대회를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전남드래곤즈, 김포에 2-1 승리...발디비아 결승골

내달 3일 서울 이랜드와 광양 홈경기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25일 오후 7시 서울이랜드와 광양 홈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 18라운드 김포FC와의 원정 맞대결서 2-1로 승리했다.

이날 전반 29분 정호진의 골로 리드를 잡은 전남은 4분 뒤 김포 루이스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하지만 후반 44분 발디비아가 결승골을 넣어 승점 3을 챙기면서 8위(승점 23·7승 2무 8패)에 자리했다.

이날 전남 정호진은 시즌 첫골을 기록하게 됐으며, 발디비아는 시즌 공격포인트 10개(6골, 4도움)로 늘렸다.

이장권 전남감독은 "부상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 2주동안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원정에서 좋지 않았던 상황을 이번 경기로 바꿨으면 좋겠다.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김포의 압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세컨드 볼을 따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잘 이행해줬다"고 밝혔다.

전남으로 이적된 후 곧바로 선발 출전하여 선발을 펼친 안준수 골키퍼에 대해 "현대 축구에서 빌드업을 펼칠 때 골키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안준수의 활약에 만족한다.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좋은 성과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감독은 "(순위)더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앞으로 잘 싸워야 한다"며 "많은 부상자가 있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준 선수들이 승리를 만들었다. 정말 중요한 경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남은 오는 7월 3일 오후 7시 서울이랜드와 광양 홈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 2 19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광양=조순의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문화중, 호남·대전·제주권역 농구 우승

남중부 E조 1위...오는 8월 왕중왕전 진출



광주 문화중학교가 '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문화중 농구부가 광주체육관에서 열린 '2023 한국중고농구연맹 권역별 대회 호남·대전·제주권역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중은 예선 첫 경기에서 전북 군산중을 만나 115대 83으로 이겼다. 이어 제주풍중을 123-53, 대전

중과 여천중을 각각 98대 71, 88대 60으로 누르고 4연승을 거뒀다.

상승세를 이어간 문화중은 전주 남중과 마지막 경기에서 101대 96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우승을 차지해 권역별 최강자 자리를 지켰다.

또 리그 5승 전승을 거둔 문화중은 오는 8월에 열리는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됐다. /조선주 기자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다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FIT[GOLF 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